

2015 10

# 한울타리

부산중앙교회 한울타리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눈물의 이야기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이 어떻게 있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C O N T E N T S

한울타리 2015년 10월 통권 9호

02 그림묵상 |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04 담임목사 칼럼 | 아침 30분을 정복하라

06 말씀테마 | 후배검사가 나의 직속상관으로

08 목장이야기 | 김 신 목장

09 성경 속으로 | 사무엘상 2장 22~26절

10 해외선교 | 네팔 지진 피해 구호

12 안내데스크 |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

14 피플 | 최평강 조연주 결혼

15 피플 | 하동우 안정현 결혼

16 문화 | 영화 '양: 단팔 인생 이야기'

18 절기소개 | 추수감사절의 유래

19 시 | 아침을 열며

20 일과 비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22 육아칼럼 | 조건적인 사랑은 눈치 보는 아이를 만든다

24 교회행사 | 9,10월

25 건강 | 요통예방체조

26 퀴즈 | 성경 숨은그림찾기

28 사진묵상 | 소나무연가



# “아침 30분을 정복하라”



최현범 담임목사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아주 커다란 변화의 동기가 될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책, 좋은 멘토, 신앙적인 집회나 깨달음에서 삶이 확 뒤바뀌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삶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평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평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간과한 채, 극적인 변화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한탕주의 아닙니까? 땀 흘려 노동한 대가로 재산을 모을 생각보다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한탕 걸리면 신세가 뒤바뀐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매일 매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구어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 번의 극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확 뒤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매일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정복하는 것이, 인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다보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 다니며 일어

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빠듯하게 일어나면서 출근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숨이 턱에 닿게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지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도 모르게 TV앞에 앉아 있다가 또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일상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즐거움은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의무감에 쫓겨서 하며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꼭 해야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를 정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요 평론가였던 아놀드 베네트가 “아침 5분의 여유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서두에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침 이불에서의 전쟁입니다 : 전날 밤 이 남자는 내일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도록 자명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자 전날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분만 더 잘 수 있다면 너무도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자명종을 끕니다. 어제 30분 일찍 울리도록 해 놓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분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급합니다. 욕실에서 작업도 대충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와이셔츠와 어울리지 않지만, 바뀔 시간이 없습니다. 물 한잔 마실 여유도 없고,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아침식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나가야 겨우 지각을 면합니다. 여유 없이 시작한 하루는 많은 실수와 무계획 속에서 후회스럽게 지나갑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내일은 정말 30분 일찍 일어나야지 결심하지만, 결국 매일 반복됩니다.

저자에 의하면 하루의 승패는 이 아침 30분의 여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점에서 인생의 성공은 아침 30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루를 정복하면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30분 - 하루를 시작하면서 30분의 시간을 먼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먼저 시간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차분히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루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아침을 정복하는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아침은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는 아침 기도를 중시했습니다. [시 88:13]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귀기울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시 5: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종종 이것을 새벽을 깨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시 108:2] “비파야, 수금야, 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매일 이 시간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가 겪은 다양한 환경, 수많은 일들, 심지어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놀드 베네트가 말한 그 남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아침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을 일찍 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한 11시 이전에는 잠이 들어야 합니다. 12시를 넘겨서 잔다면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아침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루의 승패는 그 전날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로 막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TV? 인터넷?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리된 삶을 시작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시간을 지배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30분을 정복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도전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복하고, 인생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 후배검사가 나의 직속상관으로 왔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2절

나의 나뭇은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비교하면 자기 자신만 비참해질 뿐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2006년 광주고등검찰청으로 오니 나와 한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검사가  
나의 직속상관으로 왔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 사장이 강등되어 상무가 되고, 상무가 사장이 됐다고 생각해보라.  
강등된 사장이 상무 밑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더욱이 검찰청은 상하 관계가 확실한 조직이다.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후배였던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  
이제는 내 동기들도 다 나가버렸고 남은 것은 후배뿐이다.

검사는 변호사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다.  
나 역시 그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면 내게 무엇이 남았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 남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간증을 하면서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고난입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고난이 달랐다.  
하나님이내게 좋은 직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할 자격을 주셨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아, 비교하면 불행해지는구나!  
나도 후배, 동기, 선배를 놓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불행해졌다.  
'옛날에는 잘나갔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창조하셨지 '상대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했다.

**마음이 낮아지니까 행복해졌다. 나는 지금 무얼 해도 행복하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나의 마음이 낮아지니까 성도들이 내 간증을 듣고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 없다. 고난은 유익하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_시 119:71

요셉과 다니엘도 자신의 처지를 전과 비교했다면 어땠을까.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신세라니,  
전과 계속 비교했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았다.  
낙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다니엘도 총리를 하다가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내셔서 다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다.

고난을 잘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을 낮아짐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지기까지가 참 어렵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낮아지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하다.**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사는 사람일지라도 약하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약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항상 불안해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안하지 않다.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 김인호, 하늘의 특별김사 ◀



# 김신 목장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 집사

김신 목장은 부부목장으로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면 대식구를 이루는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은 대부분의 순원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관계로 주일 점심식사 후에 교육관 3층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순원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주일 시간이 바쁜 가운데에도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순원들을 부부로 소개하려 합니다.

권찰을 맡고 계시는 임영근, 김신 집사님 가정은 직장의 일과 두분 다 유년부 총무의 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목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많은 순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주시고 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백운호, 김보미 집사님 가정도 직장이 멀리 있으시고 아이가 어리지만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영아부 교사로 섬기시는 배려가 깊으신 분들입니다.

우명훈, 홍효실 집사님 가정 또한 직장의 일과 영아부 총무의 일로 바쁘신 가운데에 목장에 참석하셔서 온유하고 화평한 분위기를 주도해주십니다.

최원만, 김시하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정으로 어린 아이가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영아부 교사로 섬기시며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즐거운 분들입니다.

김병수, 황정은 성도님 가정은 중국에 직장이 있어서 자주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참석하고 성도의 삶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의중, 백수현 성도님 가정은 너무 예쁜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주 참석하지 못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정필훈, 안영주 성도님 가정은 세례를 받으시고 자주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목장 식구들과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장님이신 김신, 이덕궁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순장님 부부는 서로 참 많이 닮으셨는데요.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순원들을 챙기시는 분들이며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양들을 잘 이끄시는 순장님 부부입니다.

저희 목장은 마음과 물질을 모아서 베트남에 한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은혜가 목장 모임 안에 풍성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김신 부부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속으로

본문: 사무엘상 2장 22-26절

글 / 고인국 목사

실로에서 사역하던 제사장 엘리에게 훘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대를 이어 거룩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무엇보다 익숙했으며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배워나갔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마음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점차 제사를 거룩한 직무라기 보다 그들의 생업으로 여겼습니다. 제사를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특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좋은 음식들을 탐내었습니다. 고기를 살을 때 그 중의 얼마를 가로채기도 했고, 심지어 고기의 좋은 부위를 달라고 험박하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2:12-17).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세상의 장녀 취급했습니다. 차세대 제사장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런 악행이 매우 높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새번역) 다 커버린 이 아들들은 높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던 이 녀석들을 주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 말씀했습니다. 그 전한 말을 들어보니 엘리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삼키도록 하느냐?”(새번역)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들이 제사 음식을 훔칠 때 바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으로 사람들을 험박할 때도 귀를 닫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악행을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음식 횡령 사건을 모른 채 하다가 여인들과 잤다는 소식이 퍼진 후에야 힘없이 한 번 꾸짖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때의 엘리를 “매우 높은”(22절) 노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통해 젊은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엘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네 두 아들 훘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34절)



---

# 네팔 지진 피해 지역 구호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 진도7.8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최소 8천명이 사망하고 16,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중앙교회는 네팔 지진 난민을 위한 구제금(10,645,400원)을 김금숙 선교사를 통해 현지에 전달하였다.

---

우리의 구호사역 행선지는 ‘다딩’으로, 지난 2015년 4월 25일 지진이 강타한 여러 산마을(라파, 카푸르 가웅, 쿡찬, 탕첻, 차빙첻, 티르, 리)로부터 이곳에 내려와 임시쉼터를 짓고 사는 피난민 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 325가구를 도울 목표를 삼았는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먹고 살 거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간 사람들도 얼마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자, 그곳 피해주민들은 필요한 구호물품들을 가져온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지진이 난 초기에는 정부나 여러 단체들이 와서 구호품을 주며 도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호의 손길이 그쳐가고 있었던 참이라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딩’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한국의 부산중앙교회의 후원으로 이번에 이 지역에서 구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바렛폴 교회 목회자와 성도(명걸 뿌라카스 슈레스터, 키산 걸레, 수지 라마)와 좃빠니 AG 교회 목사(너레스 구룽 목사), 모두 4명이 팀이 되어 2015년 8월 30일에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 부산중앙교회의 후원에 의한 지진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딩 베시’로 향하였습니다. (바렛폴에서 다딩 베시까지 92km) 때마침 네팔 남부 평야지역에서는 ‘타루’ 종족이 스트라이크(데모)를 일으켜 긴장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녁때쯤 ‘다딩 베시’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구호물품 구입을 위하여 미리 연락해 둔 상인들을 만나 물품을 받아 포장하기 시작하여 늦은 밤 자정까지 포장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트럭에 물품을 싣고 피해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코쉬’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는 그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딩’ 교회의 목사님도 우리를 반겨주었고 우리와 한국의 부산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감격시켰습니다.

기도 후,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구호물품을 분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당 2명이 와서 물품을 받아가도록 미리 고지하였는데 이는 물품 분배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호품으로는 한 가족당 25킬로 쌀 한 포대, 녹두 2킬로, 식용유, 소금과 담요 한 장씩이었습니다.



‘산코쉬’에서의 분배작업을 마치고 다음으로 ‘밀런 톨’과 ‘살란타르’ 지역으로 가서 나머지 구호품 분배작업을 했습니다. ‘살란타르’ 지역은 ‘다딩 베시’에서 3시간 거리로 비가 오는 우기인지라 길이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런 모험적인 행로에도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저녁에 ‘살란타르’에 가서 물품을 나누어 주고 다시 그 트럭을 타고 ‘다딩 베시’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275 가정에 구호품을 분배하였는데 ‘산코쉬’의 152 가정, ‘밀런 톨’의 63가정, 그리고 ‘살란타르’의 60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이미 몇 가정은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기도 하여 물품이 좀 남기도 하였습니다. ‘다딩 베시’에 도착하니 밤 9시였고 다음 날 바렛풀 교회에 도착하도록 남은 물품을 버스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 뉘을 숙소를 찾았으나 없어서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밤 12시 반에 안전하게 바렛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은 34개의 구호물품은 우리 바렛풀 지역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호 프로그램을 하는 시점에 데모와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있었고 오고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고 더욱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는데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네팔의 ‘다딩’ 지역의 지진피해자들을 위하여 후원해 주신 부산중앙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네팔 백성들을 위한 도움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을 위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명걸 뿌라까스 슈레스터,  
코이노니아 바렛풀 교회 전도사 올림



#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

글 / 민경욱 집사

샬롬- 오늘은 송호창 목사님으로부터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사님,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성경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에서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어 인도해 보는데 어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공부나 기도회 등과 같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그룹에서는 좀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이 있는 나눔과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나요?**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는 주제별 성경공부나 책별 성경공부가 아닌 일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에는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라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함께 모여 공부합니다.

**4. 성도들 간에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질문을 받고 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묻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제가 모든 것을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여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활발한 대화와 질문이 없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용한 분위기였고,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자기의 생각도 잘 나눕니다. 다른 분의 고민에 대해 자신이 은혜받은 경험을 들려주며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5. 참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공부하게 되나요?**

참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질문과 나눔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12명으로 정했습니다.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계속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가모집을 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6.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통해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바도 궁금합니다.**

첫째, 성도님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묻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성경공부이니 만족해 하십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질문을 듣고 함께 생각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 좋아하십니다. 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셋째,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유익합니다. 성경공부에서는 매달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공부를 통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샘물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묵상하고, 나아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7.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본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부산중앙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에의 참여를 통해 해소되고,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진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송호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평강♥조연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얻어 광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신입사원의 하루하루는 버터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기 중에는 적성과 맞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동료들 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를 좋게 본 동료가 한번은 잘 아는 후배라며 한 사람을 소개 해 주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직장생활 만으로도 버거울 때라 결혼상대를 만난다는 생각 보다는 소개해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 집에 가는 주말을 기다려 만났습니다. 첫눈에 밝고 귀여운 인상이라 호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교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 봤는데 다행히도 중 고등학교 때 부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쉬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광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티 없이 맑은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일여년 동안 부산과 광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조연주라는 사람은 항상 밝고, 웃음이 많으며,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어른을 공경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써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내년 가을 쯤으로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두고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지난 9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우리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둘째로, 멀리 계시지만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진것에 만족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넷째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 하동우 ♥ 이정란

대학 다닐 때 실습시간에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는 그냥 아는 오빠와 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길에서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귀면서 여느 연인처럼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질 뻔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고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매력은 예의 바르게 어른들께 잘하고 경제관념이 있고 알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를 받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완고한 입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의 집은 불교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위해서 그녀에게 교회가자고 부탁하는 입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고 청년부와 조이코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 오래된 신앙인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결혼을 하여 새신자가 된 새신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신부를 따라 다시 새신자가 된 마음으로 처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새신랑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 하면서 행복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빠에서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에 한 발자국 내딛으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 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행하는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영화 ‘앙: 단팥 인생 이야기’』

글 / 박문테 집사

영화는 벚꽃이 가득한 봄에 시작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작은 동네에 일본의 전통빵 도라야끼를 구워 파는 도라하루란 가게가 무대입니다. 언제 갠지도 모르는 빵을 안고 매일 허허로운 눈빛으로 습관적으로 빵을 구워 파는 투박한 남자(센타로)가 주인공입니다. 센타로가 굶다 실패한 도라야끼를 얻어 가는 여중생(와카나)도 등장합니다. 엄마와 둘이 살긴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엄마 탓에 새장 속의 카나리아와 대화하는 외로운 아이랍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에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을 보고 76세 된 할머니(도쿠에) 한 분이 빵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센타로는 할머니의 나이를 보고 빵을 굶는 일이 힘들다며 거절합니다. 그 날 오후 도쿠에 할머니는 도라야끼에 들어가는 팥소를 직접 만들어 다시 찾아옵니다. 자신이 만든 팥소를 맛보고 채용해 주기를 부탁했으나 센타로는 역시 거절합니다. 도쿠에 할머니가 두고 간 팥소를 맛 본 센타로는 팥소의 맛에 충격을 받고 할머니랑 같이 일하게 됩니다.

도쿠에 할머니는 센타로가 아직 자고 있는 새벽부터 찾아와 팥소를 만듭니다. 할머니는 팥소를 만들며 팥과 대화를 합니다. 전날 저녁에 팥을 물에 담아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고 행구고 익히고 식히고 당과 물엿과의 조합을 맞추기 까지 정성과 인내로 팥소를 만듭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팥소가 들어간 도라야끼는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있는 빵이 됩니다. 할머니는 와카나와 센타로와 얘기를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합니다. 본 적이 없던 센타로의 미소를 보며 ‘웃었다’고 신기해하며 깔깔대는 여학생들의 재잘거림과 도쿠에 할머니의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몇 개월간의 분주하고 활기찬 시간들이 지납니다. 도쿠에 할머니의 손에 있던 흉터가 예전에 할머니가 앓았던 한센병의 흔적이라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빵가게는 험하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벚나무의 초록색 잎사귀에게 인사를 건네며 가게에 왔던 도쿠에 할머니는 이젠 갈색으로 물든 잎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가게를 떠납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날 센타로와 와카나는 도쿠에 할머니가 계신 한센병 영양소를 찾아 갑니다. 도쿠에 할머니는 와카나와 비슷한 10대에 오빠 손을 잡고 영양소에 왔으며, 올 때 어머니가 밤새워 만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던 얘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난 10년 동안 외로웠다는 얘기를 센타로와 와카나에게 들려 줍니다. 도라야끼 빵가게에서의 시간들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얘기도 합니다.



도라야끼 가게도 사정이 바뀌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센타로는 막막해 합니다. 센타로와 와카나는 다시 도쿠에 할머니를 찾아 갔으나 할머니는 사흘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는 도쿠에 할머니가 요리할 때 쓰던 도구와 할머니의 육성이 녹음된 작은 카세트를 센타로에게 건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 자랐으면 지금쯤 센타로와 비슷한 나이며, 산보 나갔다가 도라야끼의 달콤한 냄새와 센타로의 슬픈 눈에 끌려 빵가게에 가게 되었다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봄이 와 벚꽃이 만개하고 소풍 나온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한 공원에서 센타로는 도라야끼 사라고 외치며 영화는 끝납니다. 까만 스크린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하얀 이름이 화면위로 올라가며 ‘도라야끼 주세요’라는 아이의 목소리와 감미로운 노래가 배경으로 깔립니다.

도쿠에 할머니는 ‘우리는 세상을 듣기 위해 세상을 보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센타로에게 말합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거리를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햇살과 바람과 벚꽃을 음미하듯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며 ‘벚꽃이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한센병 진단을 받으며 평생 요양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을 도쿠에 할머니의 절망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한순간의 불상사로 감옥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홀로 떠나보낸데 대한 회한이 깃든 센타로의 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도쿠에 할머니는 센타로에게 쓴 편지에서 ‘존재하는 것에는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팔이 도라야끼 빵 가게에 오기까지 팔이 담고 있을 햇볕과 비와 바람의 언어를 들으며 팔소를 만듭니다. 버스에서 내려 요양소 가는 길에 바람과 햇빛에 흔들리며 반짝거리는 풀과 나뭇잎들, 할머니가 가꾸던 꽃들은 도쿠에 할머니의 60여년간의 요양소에서의 슬픈 언어들을 담고 있겠지요. 와카나가 키우던 카나리아도 와카나의 외로운 속삭임들을 들었을 테지요.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 위로 올라가는 깨알 같은 글자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도쿠에 할머니, 와카나, 센타로의 언어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겠지요.

# 추수감사절의 유래

글 / 윤은수 목사

현대교회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 감사절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작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영국 교회는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한 국교파와, 다른 하나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하여 아직도 교회 내에 남아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기 위해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곧 Puritan,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왕의 독재를 반대하며 신앙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청교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핍박하는 왕을 피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네덜란드로 이주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1년간 머문 청교도들은 1609년 대학촌인 '라이덴'으로 옮겨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언어, 문화, 가난한 생활과 저 임금, 네덜란드 문화와 관습에 젖어드는 자녀들이 정통신앙과·도덕성과·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이주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은 모두 102명 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이 배의 무게는 180톤, 길이 90피트의 목선이었습니다. 남녀 성인 70명과 32명의 어린이, 닭 몇 마리, 개 두 마리가 승선했습니다. 1620년 9월6일 시작된 66일간의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목선이라 화재위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추울 때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의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도착하여 그들은 추위와 식량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대륙에 도착한 첫해 겨울에 질병으로 44명이 죽었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봄이 찾아왔고 주변의 원주민들이 옥수수 등 곡물을 가져다 주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1621년 가을,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곡식을 가져다 준 원주민들을 초대해 하나님께 추수감사에배를 드리며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나누어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 행사는 그로부터 242년 후인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로 선포되었습니다.

##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감사절 선언문

'우리는 최고로 정선된 하늘의 혜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보전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인구와 부, 국력 면에서도 여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평화로써 지키시고 번영과 풍요, 힘을 베푸신 그 은혜의 손을 망각한 채, 이 모든 복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덕목 때문인 줄 착각하는 헛된 망상과 속임수로 지내왔다. 우리는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속과 보호의 은총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자만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해졌다.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거스른 그 능하신 분의 존전에 겸손히 꿇어 나라의 죄를 자백하여 자비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바이다...'



## 아침을 열며 이분선 성도

가로수 은행나무  
밤새껏 일을 했네  
셋노란 잎을 날려 보도블럭을 덮었구나

담장 안에 단풍나무  
나도 같이 거들자며  
빨간 잎을 날려 담장 밖에 쌓았는데

미화원 아저씨는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대나무 몽당비로 이리저리 쓸고 있네

이 고운 단풍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가자 빨리 가자  
잃어버린 넋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빨리가자

“ 앞서의 한울타리 호에서 언급한 전통산업이면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에너지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 보자.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함.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함.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산업이라 하면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석탄·석유·전력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재, 과거부터 미래까지도 기간산업으로서 모든 산업에,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져 기존의 석탄과 석유를 이용, 에너지를 창출하는 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가 불안,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의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원전사고로 더욱 더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요구와 에너지 공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대체에너지, 신에너지 개발, 수조전지, 태양에너지, 탄소 제로 산업 등과 같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화학공학과, 자원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같은 에너지 관련 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직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으로 항상 이슈화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온실가스 인증심사원>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을 인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향후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탄소 저감 동향, 경제적 분석 등의 전문지식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가장 안성맞춤인 직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 일과비전

친환경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태양광발전 연구 및 개발자>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연구와 장치를 개발하는데 태양전지 셀의 소재 개발과 설계를 비롯, 생산설비를 연구하고 개발·생산된 전력을 전환하는 장치와 저장 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풍력발전시스템 연구 및 개발자>는 추진기의 날개, 기계의 회전 부분과 같은 장치, 발전기, 발전 안정화 장치 등의 전기장치와 풍력발전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제어장치를 연구하고 기획, 설계, 개발, 시험, 분석의 일을 한다.

<지열시스템 연구 및 개발자> <기후변화전문가>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 <에너지진단 전문가> <폐기물에너지화연구원> <에너지절약 제품 디자이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 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일할 여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의 기획/마케팅, 사무, 관리 업무도 기업의 사업 유지, 관리와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연구/개발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미래 비전을 보고 일자리를 찾아도 좋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의 취업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에너지공학과, 친환경에너지학과, 에너지 IT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환경공학/화학공학/기계공학 과에서 배경지식을 전문화하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등과 같은 자격증에 대해서도 파악, 도전해 보는 것도 권해 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후 최고의 유망직업이자 전문성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는 에너지 다원화 시대다.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에너지 관련 직업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자연 환경 보호와 함께 국위선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니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자.

글 / 민경옥 집사



## 조건적인 사랑은

## 눈치 보는 아이를 만든다

글 / 강희정 사모

“또 이렇게 하면 미워할 거야.”  
“또 이렇게 하면 아예 신경도 안 쓸 거야!”  
“말 안 들으면 할머니 집에 가서 다시는 너 안 본다.”  
“엄마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거야!”  
“또 동생 때리면 그때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안 울면 엄마가 알아 주고 울면 그냥 가 버릴 거야.”  
“밤 잘 안 먹으면 엄마가 화낼 거야.”

많은 부모가 위와 같이 대화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좋은 질문이다. 이미 이런 의문을 갖는 부모는 이런 대화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위의 대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아이에게 사랑을 불모로 헐박 하거나 흥정한다는 것이다. 아이에 대한 사랑에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랑은 순수함을 잃고 헐박으로 변질된다.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 칭찬을 받는 것은 아이의 가장 큰 심리적 욕구이다. 아이가 하는 많은 행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헐박하면 아이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부모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즉 부모는 ‘착한 아이’일 때만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가 기분 나빠 하면 자신이 착하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

부모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착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아이는 성장이 아닌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을 갖게 된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부모가 어떤 일로 언짢아하면 자책하고 당황하며 자신을 비하한다. 어른이 된 뒤에는 일찍이 사랑으로 자신을 헐박했던 부모처럼 다른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습관을 갖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친구의 반응에 신경 쓰며, 결혼한 뒤에는 배우자의 반응에 신경 쓴다.

## 육아칼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롭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책하고 당황하며 죄책감에 시달린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착취당한 것 같은 기분에 견디기 힘들어한다.

더 견디기 어려운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 갈등을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챘을 때이다. 다른 이에게 억지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속마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를 억지스럽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면 스스로를 폄하하게 된다. 그 결과 마음속 매듭이 한층 더 심하게 꼬이고 만다.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사람은 내면의 충동을 아무리 꼭꼭 숨겨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또 자존감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면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종종 멸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냉랭한 대우에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

자, 아이에게 사랑을 가지고 험박과 흥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지키자. 바로 조건을 달 때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다는 것이다. 아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면 그 행동은 고쳐야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행동을 고치는 것은 아이가 나빠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아닌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행동을 비판해도 아이는 자존감과 안정감에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믿게 된다.

만약 이미 아이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빠, 엄마는 널 사랑 할 거야.”라고 말하면 아이는 갖가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부모의 진심을 시험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랑으로 아이를 험박하는 습관이 든 부모는 변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아이가 부모를 시험하는 것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아이의 시험을 견디면서까지 변화를 시도하느니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될까? 그러나 그러다가 생기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험박과 흥정의 사랑은 아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이가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안타깝지 않은가? 아이가 더 이상 부모의 험박을 견디지 않으면 단순히 험박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권위와 신뢰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아이를 존중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린이, 『아이의 두 얼굴』, 김락준 역 (서울: 부키, 2013) 중에서 발췌



---

# 교회행사 2015년 9,10월

## 9.7(월)~11(금) 가을특별새벽기도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힘을 새롭게 공급받는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 설교영상보기



## 9.14(월)~16(수) 교역자수련회

경주에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하계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 9.24(목) 실버대학 개강

메르스로 긴 방학을 보내고 오랜만에  
보고싶은 얼굴들이 반갑게 모였습니다.  
그 동안 굳었던 몸이 노래와 체조로  
건강해졌습니다.



## 10.17(주일) 하반기 교사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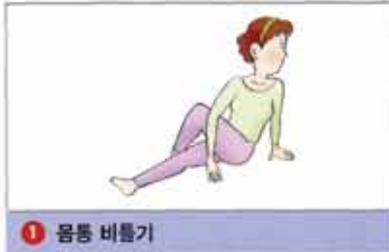
하반기 교사대학이 열렸습니다.  
강사 : 천태석목사  
(예수전도단 포항지부장)



# 요통 예방체조

## 실시 방법

- 한 동작을 10초간 유지합니다.
- 5번 반복합니다.
- 일주일에 3회 이상 수행합니다.
-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1 몸통 비틀기



2 무릎 잡아당기기



3 다리 교차하여 잡아당기기



4 전신 늘이기



5 한 다리 올리기



6 무릎 모아 바닥에 붙이기



7 상체 일으키기



8 허리 들기



9 반대쪽 팔과 다리 들기



10 앞드려 상체 들기



11 무릎꿇고 어깨 바닥에 대기



12 낙타등 만들기



13 고양이등 만들기



14 앞드려 다리 들기



15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 성경숨은그림찾기

성명 : \_\_\_\_\_

휴대폰 : \_\_\_\_\_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삼상 16:7

숨은그림 : 물고기, 초승달, 새, 왕관, 빵(꼬마바케트)

\* 성경공부함에 11월 15일까지 넣어주시면, 5명을 뽑아서 아이스크림교환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호 당첨자

김동현, 신예지, 송갑순, 유호철, 최순화

## 담임목사 최현범

### 교회의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 주일예배

1부 9:00 은혜홀(2층)  
2부 11:00 은혜홀(2층)  
3부 13:30 은혜홀(2층) 청년과함께

### 수요예배

오후 7:30 은혜홀(2층)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아가페홀(지하)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5:30 아가페홀(지하)

### 주일학교

영아부 11:00 본당3층 영아부실  
유치부 11:00 교육관1층  
유년부 11:00 교육관4층  
초등부 11:00 교육관3층  
중등부 11:00 수련관1층  
고등부 11:00 교육관5층

사무실 051) 624-4554

교역자실 624-6046

담임목사실 624-6050

중보기도실 624-0924

어린이집 624-6047

팩 스 624-4555



표지사진 가을 빛으로 물든 교회 (몇년전)

### 담임목사 설교방송

부산극동방송(FM 93.3MHz)  
수요일 오후2:30~3:00

부산CBS라디오(FM 102.9MHz)  
토요일 오후1:30~2:00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42

### 홈페이지

[www.ejoongang.or.kr](http://www.ejoongang.or.kr)

---

**발행처** 부산중앙교회

**발행인** 최현범 담임목사

**편집장** 윤화영

**기획** 김지연

**취재, 에디터** 민경욱, 표임두,

김 신, 이분선, 박문태, 강정원,

강희정, 고인국, 윤은수

**교정** 장다솜

**디자인** 서보라, 신예은

**로고** 김진아

**그림** 오형근 **사진** 오정훈

**영상(사진)** 김지연, 박경수,

김동현, 김형미

---

## 소나무 연가 (이해인 詩)

늘 당신께 기대고 싶었지만  
기뻔 틈을 좀체 주지 않으셨지요

험한 세상 잘 걸어가라  
흘로서기 일찍 시킨  
당신의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 울었습니다

한결같음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주제 넘은 허영이고  
이기적인 사치인가요

솔잎 사이로  
익어가는 시간들 속에  
이제 나도 조금은  
당신을 닮았습니다

나의 첫사랑으로  
새롭게 당신을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하며  
온몸과 마음이  
송진 향내로 가득한 행복이여



사진 / 오정훈 집사